

New York University Neurology 실습을 다녀와서

의대 4학년 최민아

이번 여름 7.3 – 7.28 New York University Bellevue Hospital Center에서 Neurology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7월 3일 부푼 마음을 안고 병원에 도착해 메일에서 설명해 주신 대로 병원 ID를 받고 점심을 먹고 Neurology Department에 도착했는데, 들어가자마자 행정원 선생님께서 일렉티브 학생이냐며 벌써 Orientation 중인데 왜 이리 늦었냐고 빨리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당황하여서 늦어서 죄송하다고 교수님께 말씀 드리고 자리에 앉아 첫 날부터 지각했으니 어찌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Orientation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시험을 실습 말에 본다고 하고 발표와 시험이 각각 어떻게 성적 비중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주었습니다. 저는 시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의학 연구 과정도 Pass/Fail로 알고 있던 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시간에 걸친 Orientation 과 연이은 뇌졸중 수업이 끝나고 나와 다시 행정원 선생님께 여쭙보니 New York University 의과대학 3학년 신경과 실습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고 저는 첫날이라 이 수업을 듣지 않고 바로 담당 레지던트 선생님을 만났어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NYU 학생으로 헛갈리셔서 잘못 가르쳐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각한 게 아니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담당 레지던트 선생님께도 사정을 설명 드리니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4주간의 미국 실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금요일 매일 7시 30분까지 가 그 날의 신환을 파악하고, 아침 8시와 정오에 진행되는 신경과 레지던트들을 위한 다양한 신경과 수업을 들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한국처럼 점심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12시에 진행되는 수업 때 도시락이나 매점에서 파는 샌드위치, 샐러드를 먹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레지던트들을 위한 수업 중 student education이라는 주제에 대해 따로 한 시간이나 시간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New York University 의과대학 3학년 중 신경과 실습을 돌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여러 수업을 들었습니다. 레지던트를 위한 수업과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수업에서는 peripheral nerves 등 해부학, epilepsy, stroke, neuro-oncology, pediatric neurology, neurologic examination, dementia, neurologic emergency 등 임상 신경과학 전반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어떤 수업에서는 attending과 resident에게 실제로 neurologic examination을 시행해 본 뒤 보이는 반응을 바탕으로 localization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는 주로 회진을 따라 돌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에 대답하거나 궁금증이 생기면 여러 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며 자원하여 새로운 환자에 대해 전날 공부한 뒤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담당 senior resident 선생님께 1:1로 과외를 받거나, 새로 온 환자에게 신경학적 검진을 직접 하여 보거나, 다음날 환자 발표 준비를 하거나, 환자의 차트를 읽고 모르는 것을 질문하거나, 환자에게 Nasogastric tube를 삽입하거나 채혈을 해 보는 등의 실습을 하거나, 레지던트 선생님께서 환자를 보러 가는 것을 따라 다니거나 자습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레지던트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께 1:1 혹은 두세 명의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기는 하였으나 그보다 자주 레지던트 선생님께 1:1로 강의를 듣고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부분은 틀리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더라도 면박을 주거나 하지 않고 더 자세히 설명해주거나, 제가 대답을 망설이면 너는 학생이니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건 당연하니 주저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응급실에 새로 온 환자가 있으면 응급의학과 초진이 끝난 뒤 신경과 레지던트 선생님께서 보시기 전에 응급실에 내려가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 신경학적 검진, 정신 상태 검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레지던트 선생님 감독 하에서 Nasogastric tube 삽입이나 정맥 채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레지던트 선생님께서 환자를 보실 때 따라가서 신경학적 검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습이 끝난 뒤 밤에도 환자를 더 보고 싶다고 자원하여 야간 consult 팀과 함께 밤 9시까지 남아 있기도 하였습니다. 야간 consult 팀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가신 한국인이셔서 한국과 미국의 의료체계 차이와 의과대학 체계 차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주간 주로 병동에 있었고, 3-4일 정도 consult unit에서 실습을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neurologic examination을 하는 것이나 환자에게 병력 청취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비디오 영상을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검진 시 하는 말을 전부 받아 적으며 공부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차츰 환자에게 영어로 병력 청취와 신체검진을 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수업에서는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는데, 금요일 오후에 있었던 의대생을 위한 수업에서는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복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레지던트를 위한 수업들은 주로 보다 심화된 내용들을 다루어 신경과학에 대한 여러 지식을 쌓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첫 며칠 동안은 회진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어 영어 때문인 줄 알고 여러 영어 자료들을 듣고는 하였으나, 이후 입원환자의 차트를 공부하고 관련 내용을 복습하고 나니 어렵지 않게 회진의 내용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실습 중 lumbar puncture를 하는 것을 옆에서 first assistance 하는 기회도 있었고 stroke code가 진행되는 과정을 참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신경과 실습을 돌 때 stroke code를 본 적이 없어 이번에 처음 보았는데, stroke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자 레지던트 선생님들께서 일사분란하게 각자 맡은 일을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New York University는 기숙사를 제공해주어서 뉴욕대 여러 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같이 방을 썼던 3명의 룸메이트들은 이탈리아 의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시신이 별로 많지 않아 해부 실습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에 해부학 캠프를 온다고 합니다. 룸메이트들과 같은 학교에서 온 이탈리아 의대 학생들과 다 같이 미국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보러 가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인 타운에서 불고기 덮밥과 한국식 양념치킨과 콜라를 사 한국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였습니다. 각자 이탈리아와 한국으로 떠나 헤어질 때에는 언젠가 서로의 나라에 놀러가 다시 보기로 하였고, 기념으로 이탈리아 모카 포트와 모카 포트용 커피 원두를 선물받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실습 첫 주에 뉴욕 물가도 비싸고, 점심 먹을 시간도 잘 없고, 체중 조절을 하려는 생각도 있어 밥을 잘 챙겨 먹지 않고 한 끼에 사과 1개 또는 바나나 1개 또는 요거트 1개 등으로 때우고, 저녁은 피곤하여 먹지 않고 일찍 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습 2주차 월요일 밤에 몸이 떨리고 곧 기절할 것 같고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혈당인가 싶어 오렌지 주스를 세 병이나 마셨는데도 나아지지 않아 택시를 타고 기숙사로 왔는데, 방 앞에 도달하기 직전에는 눈 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덜덜 떨리는 목소리에 놀란 이탈리아 룸메이트들이 초콜릿 쿠키와 설탕물을 타 준 덕분에 다행히 곧 회복하였습니다. 서울의대 선배님께서 하시는 내과에서 혈액 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부러 잘 챙겨먹고 다니곤 했습니다.

또 이번 미국 방문에서 만나 뵈었던 선배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실습이 시작하기 전 뉴저지에서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선배님들께서 숙소도 잡아주시고 맛있는 식사도 사 주시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의 이민이나 미국에서의 수련, 레지던시 매치 과정에 대해 여러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뉴욕과 뉴저지의 많은 선배님들께서 밥을 사 주시며 실습에 대한 여러 조언이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무사히 실습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뉴욕 실습을 도는 동안 뉴욕 구경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센트럴 파크와 월 스트리트, 저녁 무렵 브루클린 브릿지를 통해 브루클린에서 맨해튼으로 건너오면서 본 뉴욕의 야경, 타임스퀘어, 주니어스 레스토랑의 치즈케익 맛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대미술관인 MoMA에서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앤디 워홀의 여러 유명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지만 금요일 오후에 무료일 때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여유롭게 관람하기 힘들어 아쉬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보러갔을 때에는 규모가 정말 엄청난 것에 놀랐습니다. 제대로 보려면 일 주일을 보아도 절대 다 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실습 이전에는 다른 학생 두 명과 함께 워싱턴과 나이아가라 폭포를 둘러보고 왔는데,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12시간동안 밤 버스를 타고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하루 종일 보고, 다시 9시간동안 밤 버스를 타고 자면서 뉴욕으로 오면서 체력의 한계로 힘들긴 하였지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실습이 끝난 이후에는 보스턴에 가 이박 삼일 정도 여행을 하였는데, 하버드와 MIT 캠퍼스, 맛있는 랍스터 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신경과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지망하는 학생으로서 이번 실습을 돌면서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더욱 더 느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의료의 여러 차이점을 느꼈는데, 다른 병원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Bellevue hospital은 의사 한 명당 환자의 수가 한국에 비해 훨씬 적었고, 환자들이 보험 문제로 다 낫지 않았는데도 퇴원을 원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신과 실습을 돌고 싶었는데 NYU 사정상 정신과의 경우에는 미국 의과대학 학생들만 받는다고 하여 신경과 실습을 돌게 되어 아쉬운 점도 있었으나, 이번 의학 연구 실습을 통해 모든 의학 세부 분야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고,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궤도에 올라야 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보람찬 4주였습니다. 그린프로젝트 장학생으로서 이런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신 미주 동창회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